

# 大都市 中流家庭의 家族關係

—兩親家庭과 아들부부家庭간의

價値體系를 중심으로—

## A Study of Family Relations in the Urban Middle-Class Home

—A Changing Value System between  
Parents and Their Son's Family—

차	례
I. 序 論	
II. 關係文獻	
III. 研究方法 및 標本설계	
IV. 研究結果 및 解釋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College of Home Economics

Suk-Myung Women's University

강 사 이 정 우  
Instructor Lee, Jung Woo

### Abstract

As Korean society of today is rapidly changing, the value system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accepted in the family ought to undergo inevitable changes.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prevalent value system of the family and the degree to which it is changing in the middle-class families in Seoul.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paid in this pape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rried woman and her mother-in-law.

The conclusions at which this paper has arrived are as follows:

(1) more than the half of both married women and their mothers-in-law of the middle class in Seoul feel satisfaction for the family life; yet the rest who have responded in terms of "average" seem in fact to feel unsatisfactory in their marriage, even though they do not specifically regard themselves "unhappy;"

(2) generally, married women, including their mothers-in-law, prefer the independent, autonomous household management;

(3) both married women and their mothers-in-law wish to live independently but the

former prefer the living-together with their mothers-in-laws;

(4) married women plan to support economically the parents-in-law more than the latter want to be supported;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in-law and the married women is regarded as "good" by 62% of the former while the latter in 41% only see it in "good" terms, which indicates actually their unhappy psychological state;

(6) married women in general dislike their husband's sisters in comparison with their mothers-in-law, which seems to betray the commonly accepted view that married women go worst off with their mothers-in-law;

(7) the absolute majority of women, whether a parent and her son's wife, believe that the maintenance of a good relationship between two families is essential to the happiness of marriage;

(8) surprisingly, a great majority of married women whichever their side may be think that no interference with their children's home is better;

(9) more than a half of mothers-in-law expect their son's wife to live in distance from her own parents;

(10) married women believe that the good cause for a better marriage lies in mutual understanding and help exchangeable between them and their mothers-in-law.

This investigation has shown, to be sure, some of the salient problems in family relations which will certainly encourage further attempts to study.]

## I. 序 論

결혼한 夫婦는 새로이 당면하고 또 거기에 적응해야 할 여러 관계를 맺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새로 성립된 그들과 兩親간의 관계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결혼함으로써 좋은 삶은 남자는 妻家, 여자는 媿家와 새로운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부는 결혼생활을 통해 子女를 出生하며 그들이 성장한 후에 配偶者를 맞았을 때 父母의 입장에서 사위와 며느리, 親孫과 外孫의 새 가족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가장 밀접한 가족적 유대를 통해서 서로 관심과 기대를 크게 갖게 되며 동시에 그만큼 감정상의 起伏과 갈등이 심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정 즉 부모가정과 자녀가정이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은 가정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사회가 급속도로 변천함에 따라 한국의 가정생활도 변모해가며 가족간의 생각태도 가치표준도 또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간에 생기는 중요한 변

화 즉 가족생활의 가치체계의 현황 및 그 變化의 方向을 조사 분석하여 大都市 (특히 여기에서는 서울)의 中流家庭의 家族關係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意義있는 일이 다닌가 생각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兩親家庭과 아들부부家庭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각 가정의 中心體인 媳母 또는 子婦의 의견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처리 분석하였음을 미리 밝히 둔다.

## II. 關係 文獻

Leslie는 많은 부부들에 있어서 媳問題가 결혼의 幸福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sup>1)</sup>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는 研究가 또한 Landis에 의해 행해졌는데 그는 媳家族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좋은 관계를 수립함은 높은 수준의 결혼의 幸福度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sup>2)</sup>

이 밖에도 설사 개인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開放的인 社會라 하더라도 媳問題 특히 媳母와 子婦간의 곤란한 問題가 많음을 말해주는 研究가 여러편 있다. 그가운데 Duvall의 研究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媳家에 대한 어려움을 흔히 듣고 자란 女姓은 결혼 후 媳家族간의 관계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음을 예상하게 되며, 그 후 자신이 媳母가 될 정도로 연륜을 더해 가게 되면 역시 좋은 媳母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sup>3)</sup>

1919년 미국 家族奉仕協會(Family Service Association)의 조사에 의하면 兩親과 가족한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 갈등의 가장 두드러진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sup>4)</sup> 이와 같은 경향은 社會가 보다 더 젊은 層의 主導下에 움직이고 核家族化되어가며 個人主義가 현저하게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줄어 들지 않은 것 같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의 1945년 코넬大學 연구 팀은 媳家와의 관계가 結婚不適應의 原因중 3位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빈번한 골치거리의 원인임을 밝힌 바 있다. <sup>5)</sup> 1966년의 Duvall의 著書도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媳問題의 深刻性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媳問題는 歐美보다 더욱 심각하고 단순히 家族內的 要因이라기보다 거기에 덧붙여 家族外的——즉 傳統的인 社會倫理的——要因이 작용하여 깊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分野에 관한 연구가 거의 시도된 바 없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나올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실제로 두 가정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要因이 무엇이며 가정의 중심인물인 媳母와 子婦의 가족관계에 대한 價値標準이 어떠한가에 관한 구체적인 實態調査는 크게 바람직한 것이다.

Duvall은 單一家族안의 二重主婦(媳母와 子婦)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한 지붕안에 두 가족이 산다는 것은 그 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다」<sup>6)</sup>고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絶對多數(50—90%)에 달하는 사람들이 결혼한 子女들의 別居를 찬성하며<sup>7)</sup> 심지어는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라 하더라도 소수단(14%)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sup>8)</sup>고 생각하기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서영숙氏의 연구에 의하면 兩親家庭이 子女와의 同居하는 比率은 연령이 높을수록 크며, 또한 同居를 희망하는 比率도 연령上昇에 比例하여 增大한다. 그리하여 同居희망율을 보면, 70대에 이르러 거의 두 사람가운데 하나는 同居를 희망하는 51—52%를 나타내고 있다.<sup>9)</sup> 또 다른 研究에 의하면 老後의 別居희망은 서울의 경우 기혼여성의 상당수(69%)가 찬성했음에 비하여 지방의 경우 반수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한편 최재석氏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의 아파트 入住者들은 대다수가 兩親家庭과의 結婚後 別居를 찬성하는데 비하여 시골 部落民들은 대다수(76.4%)가 同居를 희망하고 있는 점은 매우 對照的이다. 이것은 거꾸로 子女家庭과의 老後同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入住者의 경우 비교적 적은 31%가 同居희망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部落民의 경우 70.5%의 높은 同居희망율을 보이고 있다.<sup>11)</sup>

扶養問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子女가 老父母를 반듯이 扶養해야 한다는 태도는 (1) 男女 다 같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贊成率을 나타내고 연령上昇에 따라 比例增大한다. (2) 男性보다 女性이 더 적극적인 贊成율을 나타내고 있다. (56.5%)

같은 研究에 의해서 젊은 층이 희망하는 자기자신의 장차의 老人像을 볼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老後에 子女들과 同居하면서 扶養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고(남 17%; 여 12%) 또한 子女들과 別居하면서도 경제적으로 扶養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도 거의 비슷하게 적음(남 15%; 여 17%)을 볼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子女들과의 同居·別居를 막론하고 경제적으로는 獨立하겠다는 층은 扶養받겠다는 층에 비하여 3배이상(남 68%; 여 7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2)</sup>

그러나 거꾸로 子女들側에서 老父母의 扶養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子女에의 依存度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층은 약 4중 1(23%),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층은 약 5중 3의 비율(62%)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필자가 실시해본 조사결과는 상당히 많은 수의 中流子女家庭들이 老父母의 扶養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通常의인 판단을 反證하는 것이다. 그러나 調查對象者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安定된 中流家庭이며 또한 教育的背景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체로 이러한 층은 社會的 秩序와 倫理에 대한 保守的

태도를 갖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保守的이라 함은 급격한 변화를 되도록 피하며 傳統的인 것을 가급적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制約하겠다.) 이러한 中流家庭의 保守的인 면은 어느 社會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Marvin Sussman의 研究가 이를 例證하고 있다. 13)

家庭生活을 영위하는 가운데 兩親이 子女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干與(干與)할 수 있다고 보는가? 父母는 子女들의 어린시절을 자세히 지켜 보아 왔으며, 그들의 成長過程과 長短點을 잘 알고 있는만큼 도리어 이와 같은 近接性때문에 子女들의 成人생활을 존중하기가 곤란하다. 14) 왜냐하면 父母는 子女들을 그 연령에 관계없이 항상 어린 아이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는 조사에 의하면 50代의 女性 반수 이상(58.5%)과 男性의 다대수(73.8%)는 家族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父母로서의 君臨의 태도에도 연령에 따른 변화가 옴을 자인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女性은 반수 이하(43.8%)가 命令權이 약해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15)

한편 媧母에 대해, 가장 곤란한 문제는 아들家庭의 家庭管理問題에 참견하고 私生活을 침범하는 干與때문에 일어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Duvall에 의하면 媧家族가운데 子婦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의 순서는 媧母(36.8%)와 시누이(20.3%)의 順이다. 16) 가정안의 불평의 거의 다(90%)가 子婦側에서부터 제기된 것이며, 이러한 불평의 대상가운데서 媧父와 시동생에 대한 것은 비교적 微微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면 두 家庭 즉 兩親의 가정과 既婚의 아들부부가정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Duvall의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중 약 반수(40.9%)는 서로의 가정을 용납하고 존중하며 돕고 지내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결혼부부를 중심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결혼후에도 계속 媧家(혹은 妻家)와 親家를 동등하게 보아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이 결혼부부의 가정을 媧家(혹은 妻家)와 親家에서 優先할 때 비로소 세가정간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다. 18)

이상과 같은 國內외의 關係文獻의 조사내용 및 결론은 흔히 타당하고 유익한 것이긴 하나 본인이 이번에 行한 研究와 부분적으로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본론에서 그 때마다 지적될 것이다.

어쨌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부부가 새로이 이루는 관계(in-laws)는 가족관계상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국내의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시도가 활발해졌으면 한다.

### Ⅲ. 研究方法 및 표본설계

(1) 조사실시기일

1973년 5월 10일부터 일주간

(2) 조사 대상자 선정

서울의 中流家庭을 대상으로 하여 質問紙 280部를 S여자 대학교 가정대학생과 D대학교 여학생에게 배부하였다. 이 質問紙의 응답자들은 학생들의 어머니, 언니, 이웃의 既婚女性들로서 이들은 媳母側과 子婦側을 구별하여 밝히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동원된 女大生들에게는 조사 記入事項에 客觀性을 기하기 위해 울개를 피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독립 分家한 子婦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선택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배부된 280部 가운데 194部가 수집되었으나 媳母側 103部 子婦側 91部 중 未備한 4部를 폐기하고 媳母側 100部와 子婦側 90部를 조사의 데이터로 選定하였다.

(3) 조사방법

질문지는 一部 一枚로서 20項目으로 작성되었고 그 가운데 2項目만 問答式이며 나머지는 해당칸에 (✓)를 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정리분석의 편의상 몇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兩親家庭과 아들夫婦家庭을 (1) 두 가정의 결혼의 幸福度 (2) 住居事項 (3) 兩親扶養問題 (4) 두 가정간의 관계에 대한 價値體系등에 따라서 조사 분석하기로 한다.<sup>19)</sup>

### Ⅳ. 研究結果 및 해석

#### A. 조사대상 家庭의 성격

(1) 응답자의 연령

〔표 1〕

현재연령	시	모(%)	현재연령	자	부(%)
40~45		11	20~24		3.3
46~50		4	25~29		50
51~55		25	30~34		30
56~60		39	35~39		13.3
61세이상		21	40세이상		3.3
계		100	계		100

媳母의 연령은 56~60세 사이가 가장 多數의 39%이며 그 다음은 51~55세의 年齡群으로서 25%를 차지하며 젊은 40代 媳母들은 비교적 적다.

관련 子婦를 보면 25~29세가 50%로서 가장 많고 30~34세가 30%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학 력

시모의 학력수준은 國民學校卒 28% 中學校卒 30% 高學校卒 37% 專門學校 또는 大卒 5%이며, 子婦의 학력수준은 國卒 3.3%, 中卒 6.6% 高卒 20% 大卒 70%로 월등 높다. 따라서 30代의 女性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媳母가 되었을 때의 학력수준은 大卒이 多數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며 아직 우리나라의 實情은 50~60代의 女性이 적어도 학력상 어느 정도 보수적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점이 아울러 여기에서 지적될 수 있다.

[표 2] (%)

학력	시 모	자 부
국 졸	28	3.3
중 졸	30	6.6
고 졸	37	20
대 졸	5	70
계	100	100

[표 3] (%)

직업	시 모	자 부
유	5	6.6
무	95	93.4
계	100	100

(3) 주부의 직업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모측은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이 95%, 자부측은 93%이상이다. 그러므로 家事에 專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부들이라고 볼 수 있다.

(4) 주택소유율을 보면 시모측은 연령상 경제적 안정이 된 듯 생각되며 그들의 9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자부측의 주택소유율은 56.6%에 달할 뿐이다. 이것은 연령과 경제적 안정과의 函數關係를 고려할 때에 어느 정도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4] (%)

주택	시 모 가정	자 부 가정
소 유	95	56.6
무	5	43.4
계	100	100

[표 5] (%)

종교	시 모 가정	자 부 가정
유	72	70
무	28	30
계	100	100

(5) 종 교

표 5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중 시모측이나 자부측의 宗教有無分布狀況은 거의 같았다.

(6) 생활정도

시모측에서는 스스로 생활정도를 中上이라고 평가하는 수가 52%로 가장 많고, 中이 43%,

上이 5%이다. 자부측은 中이 66%, 中上이 30%

, 下가 1%, 上이 3%로서 두 側이 다 같이 中이상이 95%를 넘고 있으므로 본 연구조사

[표 6] (%)

생활정도	부모가정	자부가정
5만원미만	0	21
5~8만원미만	37	46.7
8~12만원미만	39	3.0
12~20만원미만	16	2.2
20만원이상	8	0
	100	100

의 대상은 서울의 中産層이상의 가정이라 함이 명백하다.

### B. 두 가정의 가족관계

#### (1) 결혼의 행복도

도시 중류가정의 결혼의 행복도를 보면 시모측이나 자부측의 반수이상이 幸福을 느끼고 있고 不幸을 느끼는 가정은 거의없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보는 가정은 불행하다고 할수는 없어도 불만을 느끼는 점이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표 7] (%)

幸福度	시 모	자 부
아주 행복하다		3.3
행복하다	54	55.5
보통이다	46	41.2
불행하다	0	0
계	100	100

[표 8] (%)

同居여부		同居	別居	계
		시 모	38	
시	모	62	38	100
	부	33.3	66.7	100

[표 9] (%)

同居희망		찬성	불찬성	계
		시 모	75	
시	모	25	75	100
	부	20	80	100

#### (2) 住居狀況

現在 媣母와 子婦의 두 가정이 함께 사는가?

[표 8]에서 보듯이 媣母의 62%는 既婚 아들家庭과 同居하고 있고 반면 子婦중 33%만이 媣父母와 同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앞으로의 同居희망에 관한 贊否를 조사한 결과 媣母側은 子婦側보다 계속 同居를 희망하는 율이 5%정도 높다. 자부측은 80%가 별거를 희망하고 있고 媣母側은 75%가 別居를 희망하고 있다. (표8 및 표9 참조)

老後에는 두 가정이 함께 살아야한다고 생각 하는가? 子婦側의 56%가 不贊成이었는데 도리어 媣母側은 不贊成의 비율이 높아 59%이다.

[표 10] (%)

노후동거		찬	부	계
		시 모	59	
시	모	41	59	100
	부	44	56	100

이러한 사실은 通常的인 관념이 매우 피상적임을 가리킨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老後에 老夫婦만이 조용히 살려는 경향이 都市의 中流層 가정에서 점차 인식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요인으로는 老父母側은 젊은 층과 同居함으로써 마찰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듣거나 직접 체험하였으므로 가능한 한 경제력이 허락한다면 別居를 희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老後에는 兩親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젊은 층이 더 적극적인 찬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1%의 媣母側이 부양의무를 긍정하고 있는 반면 絶對多數(93.3%)의 子婦側은 老後에

[표 11] (%)

부 양		부모가정	자부가정
		찬성	61
찬	성	61	93.3
	불찬성	39	6.7
계		100	100



는 兩親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中流家庭이며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老後의 父母의 扶養에 관한 社會的 名分과 倫理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老後의 社會保障制度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 할 때 두 가정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 경제적 원조를 주고 받는 데 대한 긍정적 태도는 극히 고무적이라고 보며 경제적 扶養은 老世代와 젊은 世代와의 가능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징조라고 할 것이다.

(4) 두 가정과의 관계

부모가정과 자녀가정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가족중 누구와 가장 관계가 좋지 않은가? 결혼생활의 幸 不幸에 두 가족간의 관계가 영향이 있는가? 兩親은 既婚자녀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 생활을 關與함이 당연한가? 既婚子婦가정은 媿家庭, 親家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것인가? 만일 부모가정과 기혼아들 가정이 관계가 원만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등에 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a) 두 가정의 관계는 어떠한가? 대단히 좋다고 답한 경우는 子婦側이 13% 媿母側이 10%이다. 이에 반하여 좋다고 답한 경우는 媿母側이 훨씬 높아 52%이며 子婦側이 32.2%이고, 보통인 경우는 媿母側 38% 子婦側 50%로

[표 12] (%)

높다. 따라서 父母家庭側은 좀 더 관대하게 子婦家庭을 대하는데 비하여 子婦側은 훨씬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가족관계	시 모	자 부
아 주 좋 다	10	13.3
좋 다	52	32.2
보 통 이 다	38	50
나쁘다		4.4
계	100	100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해석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자부側의 50%가 보

통이라고 본 시모側과의 관계는 실상 매우 소극적이며 과히 좋지 않은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와 함께 반수이상의 시모側에서 자부側과의 관계를 좋다고 본 것은 시모側의 만족도는 극히 外形的인 것에 좌우되고 있는 반면 자부측의 滿足度는 內面的이고 잠在的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부측의 關係測定이 매우 心理的인 깊이와 관련되고 있고 시모측은 顯示的인 外樣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b) 가족중 누구와 가장 관계가 좋지않은가? 시모의 경우 86%가 子婦, 14%는 既婚 아들과 좋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子婦 64.4%가 媿母보다도 시누이와의 관계를 좋지 않게 들고 26.6%만이 시모를 지적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되고 있는 媿母-子婦와의 심각한 관계를 반증(反證)하고 도리어 子婦와 시누이 관계가 심각한 갈등의 원인임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매우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가정의 화복에서 시누이와 子婦와의 關係改善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시누이와 올케간의 不滿點研究<sup>20)</sup>를 보면 <시누이의 경우> 올케에게 오빠가 너무 잘한

다든가 반듯이 필요한 이야기의에는 말하기를 싫어한다고 보며 반대로 <올케의 경우>를 보면 역시 반듯이 필요한 경우의는 올케와 말하기조차 싫어한다든가 또는 남편이 시누이에게 너무 잘 한다든가 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媳 母는 연령차가 많아서 경쟁상대가 된다고 보다는 차라리 家事, 家庭的 慣例 그 밖의 傳統的 遺產을 배울 수 있고 尊敬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비하여 시누이와 올케와의 사이는 年齡, 位置, 思考方式의 近接性이 크므로 女性特有的 질투심과 競爭心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쉽사리 그관계가 악화될 경향이 있다. 이에 덧붙여 劣等意識이나 콤플렉스(oedipus complex)와 같은 心理的 내지 精神分析的 側面이 작용할 것이다.

[표 13] (%)

關係不好	시 모	자 부
시 아 버 지		6.6
시 어 머 니		26.6
시 동 생		2.2
시 누 이		64.4
며 느 리	86	
결 혼 한 아 들	14	

(c) 결혼생활의 幸·不幸에 두 가정간의 관계가 영향이 있다고 보는가? [표14]에서 보면 영향이 크든 또는 가끔 영향을 미친다고 보든간에 두가정간의 관계의 비중이 幸福에 영향한다고 보는 면이 絕對多數(시모측 92%; 자부측 90%)이다.

[표 14] (%)

가족관계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	시 모	자 부
영 향 이 크 다	35	36.6
가끔영향이있다	57	53.3
영 향 이 없 다	8	10
계	100	100

(d) 兩親이 既婚子女家庭을 다스리고 그들의 가정생활에 관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표 15] (%)

자부가정관여	시 모	자 부
찬 성	15	11
불 찬 성	85	89
계	100	100

15%의 시모, 11%의 자부는 자부가정을 다스리고 관여함이 당연하다고 보며 85%의 시모, 89%의 자부는 이러한 思考方式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도 또한 종래까지의 통념을 부분적으로 뒤엎는 것으로 대단히 놀라운 점이다. 자부측에서는 시모측의 가정간섭을 의당 반대하겠지만 주목할 것은 시모측자체로서도 자부측 가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 多數(85%)인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혼 여성 거의 多大數가 시모나 자부의 입장에 관계없이 비슷한 思考方式 즉 無干涉을 주장하는 것은 흥미롭다. 더우기 이러한 점은 年齡, 教育水準, 經濟力과는, 관계없었으며 아마도 時代的趨勢 즉 核家族制度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16] (%)

진가·시가의와의 관계	시 모	자 부
친 정 과 멀 리	55	23.3
시 가 와 멀 리	0	0
시가·친 가 와 멀 리	0	0
시가·친가를 다같이 보살핌	45	76.7
계	100	100

(e) 既婚子婦家庭은 媳家庭 및 親家庭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함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의 시모는 子婦가 친정과 멀리 하기를 기대하며 45%의 시모

는 시가와 친가를 똑 같이 보살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23.3%의 자부는 결혼후 친정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76.7%는 媿家와 親家를 똑 같이 보살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결혼후 媿家庭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父母는 실제로 자녀를 出産하여 成人이 되기까지 사랑과 정성을 다 하여 養育하여 온 관계로 자녀에게 강한 애정을 느끼므로 既婚子女가 결혼후에도 전과 같이 바람직한 아들 딸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결혼한 부부 특히 子婦는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오랫동안 자라온 가정을 떠나 생소한 환경에 적응해야 함으로 대개의 女性이 媿家보다 친정을 가까이하고 의존하기 쉽다. 한편 친정에서 너무 새가정에 관여하고 도와주면 자연히 媿家庭에 소홀하여지기 쉽고 시가측에서는 子婦를 이해하고 용납하기 곤란하며 감정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는 말살되고 배척하게 된다.

반대로 媿家族이 지나치게 새 가정에 밀착하고 의지하면 子婦는 媿家와의 문제와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既婚子婦家庭은 자기들의 새 가정에 모든 우선권과 尊重度를 두어 들만의 一體意識을 고취하고 서로를 理解하여 새로운 가정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親家와 媿家를 동등한 위치에서 똑 같이 보살피도록 夫婦가 협조 노력한다. 한편 親家와 媿家에서는 성급하게 새 가정에 대해 참견하고 성의를 크게 기대하거나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부부간의 적응을 위한 기회와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여준다.

媿父母側에서는 결혼후 子婦가 친정을 멀리 하기를 기대하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 온 儒教思想에 젖어 「딸은 出家外人」이란 말로 表現되는 教育을 오래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子女는 똑 같이 사랑하고 길렀듯이 결혼한 딸도 똑 같이 親家父母를 보살피야 함을 이해하고 용납하여 줄 때 두 가정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f) 만일 既婚子婦家庭과 兩親家庭이 갈등이나 곤란을 느끼지 않고 그 관계가 원만하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것인가?

반수정도의 시모는 멀리 두 가정이 떨어져 있을 때 그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고 30%의 시모가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는

[표 17] (%)

데 비하여 상대방의 생활과 권리를 존중한다든가 (11%)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돕고 지낸다든가 (8%)하는 項目에는 비교적 낮은 比率을 볼 수 있다.

반면 자부측은 무엇보다도 상대

원만한 가족관계의 원인	시 모	자 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30	26.6
상대방의 생활과 권리를 존중한다	11	33.3
멀리 떨어져서 만날 기회가 드물다	49	10.0
서로를 용납하고 돕고 지낸다	8	27.7
장자나 독자가 아니므로 큰 비중이 있다	2	2.2
계	100	100

방의 생활과 권리를 존중한다(33%)는 점과 서로를 용납하고 돕고 이해한다(28%)에 비중을 많이 두고 다음으로 경제적 자립 (27%)의 순서로 그 이유를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모측에서 본 가장 비중이 큰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원만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실은 子婦측에는 그다지 큰 문제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젊은 층으로 볼 때에는 距離여하를 막론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신적 자세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要約 및 結論

이상과 같은 소규모의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결혼에서 오는 가족관계 및 그 價値體系를 확정지을 수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大都市의 中流 家庭의 一般的 傾向을 지적하며 또한 그 중요한 어떤 局面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父母와 子女家庭이 친밀히 지내는 것은 두 가정의 정신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 두 가정은 서로의 역할, 의무 및 부담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의 기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서로의 가족관계에서 순수한 감정적 회월은 느낄 수 없다. <sup>21)</sup>

인간은 성장한 후 결혼을 하면 자기를 낳고 養育해 준 父母보다 配偶者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비록 결혼에 대한 満足도가 18%에 불과한 경우에도 슬프거나 기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상대로서 配偶者를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60%이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sup>22)</sup>

또한 Bellin 과 Hardt에 의하면 65세이상의 老人의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비율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보다 혼자 남은 老人들에게 훨씬 높았다. <sup>23)</sup>

이러한 사실들은 모든 기혼 남녀는 결혼하므로서 父母보다 자기의 配偶者를 제일 중시함을 의미하며 이것을 두 가정이 깊이 이해하여 서로의 가정을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의 家族間의 調和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전제 아래에 두 가정을 각각 이끌어 가는 媧母와 子婦를 통해서 實態調査를 실시한 결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서울의 中流家庭은 결혼에 대해서 媧母 및 子婦側의 반수이상이 행복을 느끼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들이었는데 실상 이들은 不幸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不滿을 느낀 층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

(2) 住居狀況을 보면 同居희망에 있어서 자부측은 5중 1, 시모측은 4중 1의 비율로 찬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兩側이 모두 別居를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 老後에는 두 가정이 동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층은 媧母보다 子婦쪽이 약간 많

다. 자부측의 거의 반수는 두 가정이 젊어서는 別居하되 老後에는 父母를 모시는 즉 절충적인 方案을 택하려는 것으로 본다.

(4) 老後에 兩親家庭을 扶養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율은 媳母側 (61%)보다 子婦側이 훨씬 (93.3%) 더 높다.

(5) 두 가정간의 關係를 살펴보면 父母로서의 權威를 아직도 누리고 있는 兩親家庭이 두 가정사이의 關係를 훨씬 좋다고 보고 있고(62%) 그 반면에 子婦側은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守勢의 입장에 있는 關係로 보다 비율이 낮다. (41%)

(6) 가족안에서 가장 關係가 좋지 않은 사람은 媳母로서는 子婦를 가리키고 있는데 (86%) 비하여 子婦쪽에서는 媳母보다 차라리 시누이를 더 싫어하고 있다. (64%) 따라서 媳母는 子婦가정과의 關係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딸 (시누이)들과 合세하여 事態를 악화시키는 폐단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딸들을 잘 지도하고 통제하여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도록 改善에 힘써야 하겠다.

(7) 核家庭을 指向해가는 社會的 變化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90%이상의 絶對多數의 既婚女性은 두 가정의 문제가 결혼생활의 幸·不幸에 있어서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8) 媳母와 子婦측이 거의 다(시모 85%; 자부 89%)가 子女家庭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9) 반이상인 시모(55%)는 자부가 親切을 멀리하기를 기대하며 반대로 많은 수의 자부들(77%)은 친가와 시가를 똑같이 보살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親疏關係는 가정안의 不和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다.

(10) 두 가정의 關係가 원만한 경우 그 원인으로서는 시모측은 別居 및 無接觸을 들고 있으며(49%), 자부측은 同居 別居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생활과 권리를 서로 존중해 주고 서로를 용납해 주는 사실에 더 큰 비중(61%)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찰해 온 바에 의하면 家族關係에 있어서의 既婚女性들 특히 서울의 中流家庭의 女性들의 觀點은 종래부터 通念으로 된 것과는 몇가지 점에서 다른 樣相을 띄고 있음은 특히 주목되어야 하며 變化하는 社會와 더불어 家族內의 倫理的 秩序 내지 價値體系에 많은 變化가 있다는 것에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註]

- 1) Leslie, Gerald R.,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p 314~316
- 2) Landis, Judson T. & Mary G. Landis,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3), p. 334
- 3) Duvall, Evelyn M., *In-Laws: Pro & Con*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6), p.2.

- 4) Hollis, Florence, *Women in Marital Conflict: A Casework Study*(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1949)
- 5) Rockwood, Lemo. & Mary Ford, *Youth, Marriage and Parenthood*(New York: Wiley, 1945)  
 男性(32.6%) 女姓(44.8%) 즉 부부(38.5%)는 媳關係가 결혼생활의 골치거리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 6) Duvall, Evelyn M., *Family Development*(New York: J.B, Lippincott Company, 1967), p. 444 "No roof is big enough for two families."
- 7) Schorr, Alvin L., "Current Practice of Filial Responsibility," in Robert F. Winch, Robert McGinns, and Herbert R. Barringer,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the Family*(New York: Holt Riehart & Winston, 1962), p. 424
- 8) Smith, William M., "Family plans for Later Years", in *Marriage and Family Living* (Feb. 1954) pp. 36-40
- 9) 서영숙 "가정에 있어서의 노인문제," 大韓家政學會誌 제7호.(1969) p. 85
- 10) 이태현 "韓國既婚女性の 配偶者와의 家族關係考察," 大韓家政學會誌 제6호(1968) pp. 142-164
- 11) 최재석, 韓國家族研究, 서울:民衆書館, 1970, pp. 374-377
- 12) 서영숙, 上揭論文
- 13) Sussman, Marvin, "The Help Pattern in the Middle Class Famil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VIII (Feb. 1953) pp. 22-28. 중류가정은 특별히 서로 밀접하며 애정 및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강한 유대를 갖고 비교적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14) 이정우 "主婦와 媳母間の 關係考察" 大韓家政學會誌 제7호, p. 115
- 15) 서영숙, 上揭論文, p. 85; pp. 80-95
- 16) Duvall, In-Laws,
- 17) John L. Thomas, *The American Catholic Family*(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56) p. 235
- 18) Duvall, In-Laws, p. 279
- 19) 이 研究에 여러가지 제한점은 父와 子가 보는 두 가정간의 관계, 既婚男性과 妻家간연의 관계, 결혼한 딸과 친정부모간의 관계를 추구하지 못한 점이며 앞으로 이 方面의 의 구를 계속하여 必積하다.
- 20) 우경순 "시누이와 "올케사이의 불만점에 관한 연구" 가정학 연구: 속대 (1972) p. 8.
- 21) 이정우 "주부와 시모간의 관계고찰" 大韓家政學會誌 제7호, (1969), p. 112
- 22) 이태현 "한국 기혼여성의 배우자와의 가족관계고찰" 大韓家政學會誌 제6호, p. 162
- 23) Seymour S. Bellin & Robert H. Hardt. "Marital Status and Mental Disorders Among the Ag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XIII (April, 1958), pp. 155-162

### 參 考 文 獻

1. 서영숙, "家庭에 있어서의 老人問題" 大韓家政學會誌, 제7호, 1969.

2. 우경순, “시누이와 올케사이의 불만점에 관한 연구, 家政學研究 제5집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학회, 1972.
3. 이정우, “主婦와 媳母間의 關係考察” 大韓家政學會誌, 제7호, 1969.
4. 이태현, “한국 기혼여성의 配偶者와의 家族關係 考察” 大韓家政學會誌 제6호, 1968.
5. 최재석, 韓國家族研究, 서울: 민衆書館, 1970.
6. Duvall, Evelyn M., *Family Development*, (New York: Lippincott Co., 1967)
7. Duvall, Evelyn M., *In-Laws: Pro and Con-An Original Stud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6)
8. Hollis, Florence, *Women in Marital Conflict: A Casework Study*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1949)
9. Landis, Judson C, and Mary G. Landis, *Personal Adjustment Marriage and Family Living*,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5)
10. Leslie, Gerald R.,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7.)
11. Nimkoff, Meyer F., *Marriage and the Famil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47.)
12. Rockwood, Lemo, & Mary Ford, *Youth, Marriage and Parenthood*(New York: Wiley, 1945.)
13. Schorr, Alvin L. “*Current Practice of Filial Responsibility*,” in Robert F. Winch, Robert Mc Ginns, and Herbert R. Barringer,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Holt Riehart & Winston 1962)
14. Smith, William M., “*Family Plans for Later Years*,” in *Marriage and Family Living* (Feb 1954.)
15. Sussman, Marvin, “*The Help Pattern in the Middle Class Famil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VIII(Feb, 1953.)
16. Thomas, John L., *The American Catholic Famil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56)
17. Waller, Willard, *The Family--A Dynamic Interpretation*, (New York: The Dryden Press, 1956)